

-았/었으면 좋겠다

희망, 바람

바람을 나타냅니다. 안에 들어 있는 과거 표지는 과거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. 상황이 가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치로, '시간이 더 있었으면' 하고 바랄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이 ㅏ 또는 ㅑ	-았으면 좋겠다	오다 → 왔으면 좋겠어요
그 밖의 모음	-었으면 좋겠다	있다 → 있었으면 좋겠어요
하다 동사	했으면 좋겠다	했으면 좋겠어요
과거 표지 없는 형태	-(으)면 좋겠다	오면 좋겠어요
부드러운 부탁	-아/어 주셨으면	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
과거 시간이 아님	가정의 표지	왔으면 — 왔으면 하는 바람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축약을 포함해 -았/었- 규칙을 따릅니다: 왔으면, 갔으면, 했으면. 그 뒤에 좋겠다를 붙입니다.

과거 표지가 없는 -(으)면 좋겠다도 있으며 뜻은 거의 같습니다. 았/었이 들어간 형태는 조금 더 간절하고 현실에서 먼 느낌이라서, 이루어지기 어려운 바람일 때 주로 씁니다.

-고 싶다는 달리 자신의 행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. 날씨, 다른 사람의 건강, 상황의 변화 등을 바랄 수 있습니다: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

부탁을 부드럽게 할 때도 씁니다. 조금만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는 직접적인 조용히 해 주세요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.

■ 예문

- 1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
- 2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
- 3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
- 4 조금만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
- 5 이번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.
- 6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.

■ 비교

-고 싶다

-고 싶다는 어떤 행동을 하고싶다는 뜻으로 자신의 행동에만 씁니다. 이 표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해 어떤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

쉬고 싶어요. (쉬고 싶다) /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 (비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)

-(으)면 좋겠다

둘 다 맞습니다. 았/었이 들어간 형태는 현실에서 더 멀고 조금 더 간절하게 느껴지며, 없는 형태는 실제적인 선호에 가깝습니다.

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. (시간이 있으면 좋겠다) /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(정말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)

-기를 바라다

연설이나 편지에서 흔히 쓰는 격식 있는 문어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 쓰면 딱딱하게 들립니다.

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(말) /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(격식)

■ 주의

✗ 가족들이 건강하였으면 좋겠어요.

○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

이 자리에서 하다는 과거형과 똑같이 했가 됩니다.

✗ 어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 — '어제'에 대한 바람으로 쓴 경우

○ 어제 비가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.

여기서 았/었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나 앞으로에 대한 가정적인 바람을 나타냅니다. 어제 일에 대한 후회라면 표현 전체가 달라집니다.

✗ 저는 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. — '가고 싶다'는 뜻으로 쓴 경우

○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.

자신이 하려는 행동에는 -고 싶다가 자연스럽습니다. 좋겠다는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상황에 어울립니다.